

김별아의 문학과 삶



김 정리 맘 정리

이사를 했다. 아이의 학교 근처 동네로 옮겨서만 벌써 세 번째다. 집도 인연인지라 한 자리에 오래 터를 잡고 살고 파도 내 뜻과 별개의 변수가 끊임없이 생겨난다. 매매를 위해 전세 연장을 앓겠다는 집주인의 통보로 급하게 얻은 새 집이 바로 같은 아파트 단지의 옆 동이다.

이삿짐센터와 부동산중개소에 내줄 돈도 부담이지만 배란다 창문에서 뻗어 보이는 똑같은 넓이, 똑같은 구조의 집으로 집을 끌고 들어갈 헛고생에 실란했다. 그나마 포장 이사라는 편리한 서비스가 있어 직접 집을 싸고 푸는 수고는 덜었지만, ‘견적’을 내려 나온 이삿짐센터 직원은 우리 집에 들어서 자마자 한숨을 내린다.

“아이고, 책 짐이 꽤 많네요. 5톤 트럭만 써서 다 옮길 수 있으려나?”
 가구나 가전제품은 지극히 간소한 터에 오직 큰 짐은 온 방을 에둘러 쌓인 책들이다. 이사를 할 때마다 책은 ‘견적’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1톤 트럭의 추가 비용을 물지 않으려 서둘러 정리를 해본다. 추억의 이름으로 간직했던 학창시절의 빛바랜 책들을 비로소 수습질한다.
 이어 두툽한 잡지와 토막글을 실었던 이런

저런 지면들도 간단히 추려낸다. 비교적 깨끗하고 볼 만한 새 책은 중고서점에 팔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렇게 수선을 파운 끝에 끝까지 남은 것이 저자의 사인이 남아 있는 책들인데, 그것만은 차마 중고서점이나 남의 손에 돌릴 수 없어 또다시 챙겼다.

그런 기념품에다가 아직 못 읽은 책, 다시 한 번 읽고 싶은 책, 자료 삼아 자주 들춰보는 책을 더하니 정리를 했으니 정리한 흔적도 찾기 어렵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그랬던 것처럼 절로 한숨이 새어나온다.

언젠가는 책을 보물처럼 여기며 욕심부린 적이 있다. 집심값을 아껴 산 한 권 책을 허기를 잊었고, 구두쇠가 공간에 재물을 쌓듯 책들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책장을 보며 흐뭇해 했다. 물론 그 욕심의 밑바탕에는 더 많이 읽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은, 지적 허영과 현학까지를 포함한 열정이 있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은 모아 옮겨온 책들이 늘어날수록 책을 귀하게 여기고 얌에 진실한 마음은 도리어 희미해진다는 것이었다. 책 선물을 받고도 시큰둥한가 하면 책을 사 놓고도 읽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무엇보다 책 그 자체의 감축과 냄새와 부피감에 황홀

했던 기억이 사라졌다. 이제는 나 자신이 책을 쓰고 그것을 팔아 먹고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더 이상 책만으로 행복한 순정환 책벌레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에 명나라의 유명한 서적광 주대소(朱大韶)의 일화는 과연 책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곱씹게 한다. 주대소는 평소에도 중국에서 가장 값지다는 송판본(宋板本)을 갖고픈 욕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집에서 우연히 송판으로 된 ‘후한서’를 발견했다. 흥분한 그는 책 주인에게 그것을 팔라고 간청했지만 주인은 억만금을 준대도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미칠 권(伍)’자를 쓰는 서적광일 수 없으니, 주대소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신의 아름다운 예절과 송판본 책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책 주인은 결국 주대소의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겨 책을 팔고 예절을 얻었다. 그때 졸지에 책값으로 팔린 예절은 벽에서 시 한 수를 써서 붙여놓고 떠난다.

‘내 뜻과 상관없이 이곳을 떠나가지만/ 그 옛날 예절을 말(馬)과 바꿨다는 이야기 보다는 낫겠지/ 언젠가 재회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말길/ 무심한 봄바람만 길가의 나뭇

가지에 불어대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주대소는 스스로 사랑을 버린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병들어 앓다가 곧 죽었다. 책장에 귀한 책을 꽂아놓고 바라보는 만족감이 사랑하는 여인의 빈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욕망이 삶을 넘어버릴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고상한 취미가 아니라 기벽이다. 그것이 물건이든 마음이든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무겁고 납치는 것은 다만 집일 뿐이다.

언젠가 지상에서 떠나야 할 즈음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짐이 되리라는 사실을 곱새긴다. 마지막 순간엔 사방 벽을 메운 책무더기 대신 머리맡에 재미나게 읽던 책 서너권을만 남겨두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귀하게 읽고 깨끗이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마땅할 터인데, 아직도 한꺼번에 기증을 하거나 털어버리기에 아깝고 아쉽고 선뜻 결심을 하기 어려우니, 집만큼이나 정리하기 어려운 것이 많으니 보다. 그 마음이 좀내 깔끔해질 때까지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무거운 책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야 할 것 같다. 내 부질없는 미련이 미련스럽다. <소설가>

종교칼럼

국민의 행복과 정치지도자



김재영
광주성안교회 담임목사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보았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이라는 말을 무려 20번 이상 했다. 그런 만큼 이 나라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그 권력을 작은 정승처럼 모아서 대통령과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에게 믿고 맡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라는 정치지적 사명을 가져야 하겠다.

국민은 정치지도자들에게 권력을 맡기고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행복

추구권(幸福追求權)이라 함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給付)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년 7월 21일 선고 93헌가14 결정)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내용에 의하면 행복이라는 관념은 다의적인 것이고 행복의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상이한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질적 충족을 행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 만족을 행복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이 동시에 충족될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행복추구권이 다 함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정 부분에 충족을 얻었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해 진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몇 년 전 있었던 S방송사의 “정치 지도자 리더십” 행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이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과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을 했다. 정치에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 국가에 존속되어 있다. 물론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타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국민의 범주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참으로 소박하다. 벼락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 원한다. 자녀들이 회망을 잃지 않고 비전을 갖고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국민의 열망이다. 정부는 GDP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있다는 것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위로하지 못한다.

새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이 잘해서 우리 국민이 잘 살게 되었다고, 좀 더 행복해 졌다고 하는 말을 이례는 듣고 싶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당파 싸움으로 정치가 흔들릴 때 민심이 어지럽고,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당리당략에 서로에게 비판만 난무한다면 민생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국민을 또한 무심하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누가 뭐래도 정치

인들은 국민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살림은 정치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결정되어 진다.

성서에는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왕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왕국의 흥망성쇠가 판가름난다는 내용이 참으로 많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한다. 다시 한 번 성숙한 정치인들의 변모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우리 국민들은 때론 매서운 눈으로 회초리를 들기도 하자. ‘국민이 믿고 따라주어야 하지’ 하면서 함탄하려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치 불신이라는 병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고 겸허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아픈 이들은 싸매어 주었으면 한다. 외치는 이들에게는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어주었으면 한다.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품고 봉사해야 한다. 정치인과 국민은 구별된 그룹이 아니다. 그들 중에서 세워진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이양받은 권력과 힘을 국민을 위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이 나라와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집도, 학교도 없는 혁신도시 누가 오겠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도 시에 역사적인 첫 입주자가 시작됐다. 이전 대상 15개 기관 중 처음으로 우정사업본부정보센터가 4일 신사옥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가 본격적인 ‘빛가람도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지난 2007년 첫 삽을 뜬 빛가람도시 조성사업은 정부의 무관심과 일부 공공기관들의 이전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여 이상 늦어지고 있지만 우정센터의 입주는 그 첫 성과라는 점에서 경사자 의미 또한 크다. 무엇보다 빛가람도시가 광주·전남의 미래를 여는 ‘성장동력’의 도시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데 있다.

우편과 금융, 전자업무를 맡고 있는 우정사업정보센터에는 816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며, 연 예산만도 1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4월 착공한 농수산식품연수원은 오는 9월 완공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전자진흥원 등 5개 기관이 나주로 옮겨온다. 하반기에는

최대 기관인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이 입주하게 된다.

그러나 빛가람도시는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정주 기반시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정센터 직원 중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직원은 616명에 달하지만 도시에 주거시설이 없어 나누나 광주시에 원룸 또는 아파트를 임대해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학교도 없고, 주차지가 나주일 경우 자녀들을 광주로 전학시킬 수도 없어 출퇴근 문제와 함께 3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 어느 누가 가족을 데리고 오겠는가.

이직원만 내려올 경우 신도시로 계획된 빛가람도시는 상당기간 ‘허허벌판’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빛가람이 도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교육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문화·의료·복지시설 등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해 제대로 된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돈 먹는 하마’ 지방공기업 두고만 볼 건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공기업 부채가 가계 부채에 이어 제2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공기업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마당에 공기업 부채는 지방정부가 떠맡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시민의 세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방공기업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8개를 포함한 전국 공기업 81개가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기업이 379개인 점을 감안하면 부실 가능 공기업은 21.4%에 이르며, 광주·전남 29개 공기업의 경우 이보다 높은 27.6%에 달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은 전국 16곳 모두 부실화 가능성이 높았다. 지하철공사 역시 전국 7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4곳이 부실 위험에 처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도 광주 3개, 전남 1개 등 총 69개나 됐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50% 이상 출

자해 운영하는 직영기업·공단·지방공기업 부채가 가계 부채에 이어 제2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공기업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마당에 공기업 부채는 지방정부가 떠맡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시민의 세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각종 개발공사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데 있다. 게다가 수익성은 민간부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데도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용되고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지자체 형편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실화는 해당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국가 경제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기업 통합부채관리 및 전문경영시스템 도입, 자구노력 강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얼마 전 개그맨 김병만이 모 공중파 인기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 촬영차 갈라파고스에 갔다가 곰치에게 손가락을 물려 하마터면 손가락을 잃을 뻔했던 일이 화제가 됐다.

곰치는 장어처럼 생긴 물고기로 ‘이중 턱’이란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입안에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턱이 앞뒤로 나란히 있고 이빨도 안쪽으로 나 있어 제대로 물리면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다.

영화 ‘에일리언’을 보면 외계 괴물의 입안에서 또 다른 입이 튀어나와 사람의 몸을 꿰뚫는 장면이 나오는 데 이중 턱을 가진 곰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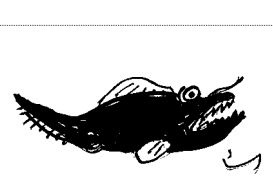
2년 전 즈음의 일이다. 집에서 키위를 먹다가 앞 이가 부러지는 황당할 일을 당한 적이 있다. 아내가 깎아 준 키위를 통째로 먹다가 벌어진 일이다. 말랐던 키위에 무슨 비밀 병기라도 숨어 있었던 것일까.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이를 부러뜨린 비밀 병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다행히 부러진 이가 조금 남아있어 여기에 인공 이를 끼워 2주 만에 영구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고 경위를 들은 병원에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당황해 하면서도 키워의 위력에 놀랐던 기억이 새롭다.

머칠 전 직접 키위를 깎다가 이를 부러뜨린 비밀 병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 이후 키위를 자연스럽게 멀리했지만 키위를 깎아달라는 아이들의 성화에 다 호기심까지 발동해 결국 고투를 들었다. 키위를 깎아보니 꼭 지부분에 압정모양의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상아 색 빛깔의 머리와 날카로운

핀을 가진 이놈이 이를 부러뜨린 비밀 병기였던 것이다. 곰치의 이중 턱이나 키워의 심지를 보면서 ‘진정으로 강한 것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우치게 된다. 자연의 섭리를 깨우치는 과정에서 겪는 아픔이 클수록 잊지 못하는 법이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키위 심지



기고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김선명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

자행했던 과거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제94주년 삼일절이다. 우리의 선열들은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방방곡곡에서 3·1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3·1독립만세운동은 자주와 자유 그리고 평생을 추구하려는 우리 민족의 강한 의지의 분출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으로 종교와 지역, 남녀노소, 신분과 지위의 구별 없이 삼천만 민족이 하나가 되어 결기한 만세운동이다.

3·1독립만세운동은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수많은 만세운동이 일어나 대내외에 독립의지를 알렸다. 일례로 강진군의 독립만세운동은 천도교인과 기독교인들의 주동으로 이뤄졌으며 천도교는 송화전 선생이 장흥 김재주 선생을 통해 독립선언서를 받아와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

고, 기독교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3·1운동 소식을 교인들에게 전달하여 군에대 널리 전파되었다.

비록 1919년 7월 일제가 대대적인 무력을 사용하여 전국적으로 투옥 4만6000여명, 사망 7만500여 명, 부상 1만6000여명의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3·1독립만세운동의 민족정기는 그 후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국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선열들의 목숨 건 활동으로 인해 현재 우리는 자주, 자유, 평화를 만끽하며 숨을 쉬고 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월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3월 1일을 국경일로 정하였다. 삼일절에는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된다.

올해 삼일절은 연휴의 첫날이다. 쌀쌀했던 겨울날씨도 어느덧 풀이진데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연휴로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나 여행을 갈 것이다. 하지만 나들이에 앞서 집안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삼일절 기념식장을 찾아가 행사에 참여하거나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겼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항상 당연하듯이 여겨져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자유는 선열들의 피와 땀방울이 동져져 이루어진 것이다. 삼일절을 맞아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어렵게 얻어졌으며,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순국선열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나무 반출시 이력사항 표기해 남벌 막아야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대형 트럭에 실려 가는 거대한 소나무 같은 걸 자주 본다. 물론 어디에선가 주문을 받아 캔 뒤 실려 가는 것일 테지만 사실 무단으로 이런 고가의 고목을 캐 가는 나무 절도범들이 전국에 활개 친다고 한다.

잘 알다시피 오래 묵은 소나무 같은 경우 그 가치가 엄청나게 비싸다. 이걸 팔아치워 돈을 벌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을 돌

아다니며 나무를 찍어 놓은 뒤 절절한 타이밍에 나무를 캐서 운반할 장비와 사람을 구해 몰래 캐가는 것이다. 무단으로 캐낸 소나무를 팔아 치우는 과정에서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소나무의 희생을 면안하다. 그걸 타지역으로 반출하다 보니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역 체계가 무력화되는 악순환까지 벌어진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폐해와 위험성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재선충으

로 인한 소나무 고사를 막기 위해 세계적인 명산인 황산 주변의 일정한 면적 전체의 소나무를 미리 베어낸 정도로 위험한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운다.

개인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소나무가 이래저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거대한 소나무를 움직이려면 트럭이 필수적이다.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만 가능한데 이렇게 트럭 적재할 뒷부분에 화물이 돌출될 경우 뒤차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빨간색 천 등으로 필러에게 매달아 주행하도록 돼있다.

이걸 이용해서 나무를 반출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주는 나무이동 전용리본을 구입해서 부착하도록 의무화시킬 수 없을까. 그러면 이걸 구입하기 위해 나무 굴취자와 운송자의 신원이 사전에 파악되고, 또한 그 리본에 나무를 캐서 이력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허가코드 번호를 써 붙이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이다. 경찰관이나 과적단속구간에서 이번호를 조회한다면 그 나무가 허가받아 이동하는 것인지, 무단으로 캔 수목인지 단박에 알 수 있으니 나무의 도굴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삼욱·목포시 대방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93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